

美, ITC 조사 본격화

‘보톡스 균주’ 공방 2라운드

〈나보타〉



대웅제약, 前직원 매수해 정보 훔쳐 유전체 검증으로 불법행위 밝힐 것



내일까지 균주 서류 전문가에 제출 메디톡스 주장, 허위임을 입증할 것

보툴리눔 독신의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재점화 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본격화 된다. 양측은 이번 조사로 상대의 허위를 입증하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13일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보툴리눔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독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가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의심해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상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인 “ITC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한쪽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 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마구간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기회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제조 방법 뿐 아니라 균주와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 비밀이 될 수

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이 전 메디톡스 직원을 매수해 균주와 제조 관련 정보를 훔쳤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에서 두 회사의 균주 공방이 가려지지 않은 채 대웅제약 나보타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았고, 메디톡스의 제소로 지난 3월 1일부터 ITC의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대웅, 50억 대웅제약 주식 취득

나보타 수출·R&D 등 성장 기대

대웅이 대웅제약 주식 매입 통해 자회사 지분을 확대한다.

대웅제약그룹 지주사 대웅은 13일 자회사 대웅제약 주식 2만6455주를 약 50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의 미국 진출 시작과 함께 전문의약품(ETC)과 일반 의약품(OTC)의 고른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R&D 파이프라인 확대와 임상 결과 도출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어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해 1조 클럽에 첫 입성한 이래, 올해 1분기 나보타 수출 등 자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고른 매출 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3% 성장한 2381억원의 매출을 거둔 바 있다. 특히 나보타는 전년 동기 대비 1107% 성장한 매출 33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도 기대가 크다. 신약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선 내용은 APA 항균양제 2018년말 임상 3상에 진입했으며, 한울바이오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글로벌 임상 3상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이향운 이화여대의료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혜



걸쳐 34억 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연구사업은 생체 신호를 통해 수면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수면 관련 뇌회로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이향운(사진) 교수팀이 ‘인공지능기반 수면인지 강화 신경기능 조절 첨단 융합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제1차 휴먼플러스 융합 연구 개발 사업 본 과제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향운 교수팀은 이번 연구 사업 선정으로 5년(1단계 3년, 2단계 2년)에

자극해 수면 품질을 개선하면서 인지 기능을 높이는 연구로 이화여자대학교 엘텍공과대학 지창현 교수, 이정록 교수, 쉰뉴로소나 서선일 대표가 세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동아에스티는 ‘제14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 모집을 오는 6월9일 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가 주최하는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미래 꿈나무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으로서의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전국의 중학생은 누구나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접수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총 60명(남녀 각각 30명)이 선발된다. 선발된 최종 참가자는 6월 21일 행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세경 기자

현대렌탈케어, 月 3만원대 ‘직수형 냉온정수기’ 출시

‘중고가’ 렌탈시장까지 노린다

위생 관리기능 강화로 품질 ↑

月 3만~4만원대 제품으로 공략



더슬림히든케어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렌탈케어가 높은 가성비로 시장 안착에 성공하자, 고급형 정수기와 대형 생활가전 등을 앞세워 ‘중고가(中高價) 렌탈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홈케어 기업 현대렌탈케어는 위생관리기능을 강화한 3만원대 신형 직수형 냉온 정수기 ‘큐밍 더슬림 히든케어 직수형 냉온 정수기’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큐밍 더슬림 히든케어 직수형 냉온 정수기’의 월 렌탈료는 3만2900원(화이트)과 3만4900원(실버)으로, 현대렌탈케어가 3만원대 직수형 냉온정수기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 선보인 직수형 냉온 정수기 렌탈료는 모두 2만원대였다.

‘더슬림 히든케어 정수기(HQ-P1910C)’는 기존 팬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공냉식 냉각방식’보다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소형 ‘인버터 컴프레서(압축기)’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프레온 가스-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가스 발생이 적고 소

량만으로 냉각효과를 낼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냉매제 ‘R600’을 사용했다.

새 제품은 이중 위생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먼저, 1시간마다 자동으로 ‘UV-LED’ 빛을 코크(취수구)에 10분간 쬐어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UV-LED 코크 살균 기능’을 탑재했다. ‘UV LED 살균’이란 UV-C 파장 대역의 자외선을 이용해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친환경 살균기법이다.

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그동안 우수한 품질에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렌탈시장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며 “이번 더슬림 히든케어 정수기 출시를 시작으로 월 렌탈료 3만~4만원대의 중고가 렌탈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 메디힐 ‘BTS마스크팩’ 독점 판매

‘러브미캡슐인마스크’ 5만개 한정

편의점 GS25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메디힐의 ‘러브미캡슐인마스크 BTS스페셜 에디션’(이하 러브미캡슐인마스크)을 5만 개 한정으로 독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디힐 러브미캡슐인마스크는 지난 4일 메디힐의 오프라인 매장인 힐링온더메디힐과 메디힐몰에서 진행된 1차 판매에서 3시간만에 완판 됐다.

GS25에서 선보이는 러브미캡슐인마스크는 1차 판매분과는 다른 구성이지만 알차게 구성됐다. 캡슐에 담겨있는 3종의 마스크 팩으로 구성됐으며 BTS 쇼퍼백에 담겨 제공된다. 마스크팩은 ▲수분·생기 마스크 ▲광채·윤기



메디힐의 러브미캡슐인마스크 BTS 스페셜 에디션. /GS25

마스크 ▲수딩·촉촉 마스크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아보카도 오일, 로즈힙 열매오일, 티트리오일 등의 천연성분이 함유된 고 기능성 제품이다.

GS25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로 통한 본부 수익금 중 일부를 다문화가정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편의점서 간편하게 ‘국제특송’ 보내세요”

세븐일레븐, 페덱스와 배송 서비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국제특송 물류기업 페덱스(FedEx)와 함께 해외 서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7일 오후 페덱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글로벌 배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간단한 서류를 해외 어디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국제 발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세븐일레븐의 해외 서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페덱스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 접수를 한다. 이후 휴대폰으로 발송된 예약번호와 함께 발송할 서류를 가지고 세븐일레븐을 방문

해 접수만 하면 된다.

접수 수거 및 1차 물류 이동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담당한다. 접수된 서류는 롯데택배를 통해 인천국제화물터미널의 페덱스 물류센터로 이송되며, 이후 페덱스가 수거하여 해외 특송이 이루어진다.

세븐일레븐 해외 서류 배송 서비스의 최대 허용 중량은 0.5kg 이하이며 전 국가단일 요금제(건당 2만750원)를 적용한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배송기간은 미주 기준 최대 5일이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국제 서류 배송 서비스가 전국 오피스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고객 수요가 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